KOSDAQ SMALL-CAP RESEARCH

인텔리빅스 420610 · AI 영상분석

악재 우위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화재·침입·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안전 AI'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과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회사.

2026년 11월 18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거래대금 순위 5위(78.6억), 2026년 10월 30일 신규 상장한 AI 영상분석 기업으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5배 급등 후 20일 만에 -75% 급락. 증권신고서·발행실적보고서 등 IPO 관련 공시가 최근 집중 발생.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864억	7,620원	-2.81%	79억	11.39배	2.22배	55.02%	209.80%

쉬운 요약

2026년 10월 30일 막 상장한 따끈한 신규주이자, 그 신규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공모가 9,000원으로 상장해 첫날 3.5배(공모가 대비 244%) 급등하며 화려하게 입성했지만, 20일 만에 주가가 31,000원에서 7,620원으로 약 75% 빠졌습니다.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안전 AI' 기업으로 **13년 연속 흑자, 2025년 매출 466억·영업이익 49억**을 기록했고, 부채비율 55%·유보율 2,603%로 재무도 탄탄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상장 초반 과열이 식으면서 떨어지는 중이고, 보름 뒤·6개월째 보호예수 해제라는 물량 고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전형적인 신규상장주 조정 국면이라, '싸졌다'고 보기엔 PBR 2.22배로 자산 대비 저평가도 아닙니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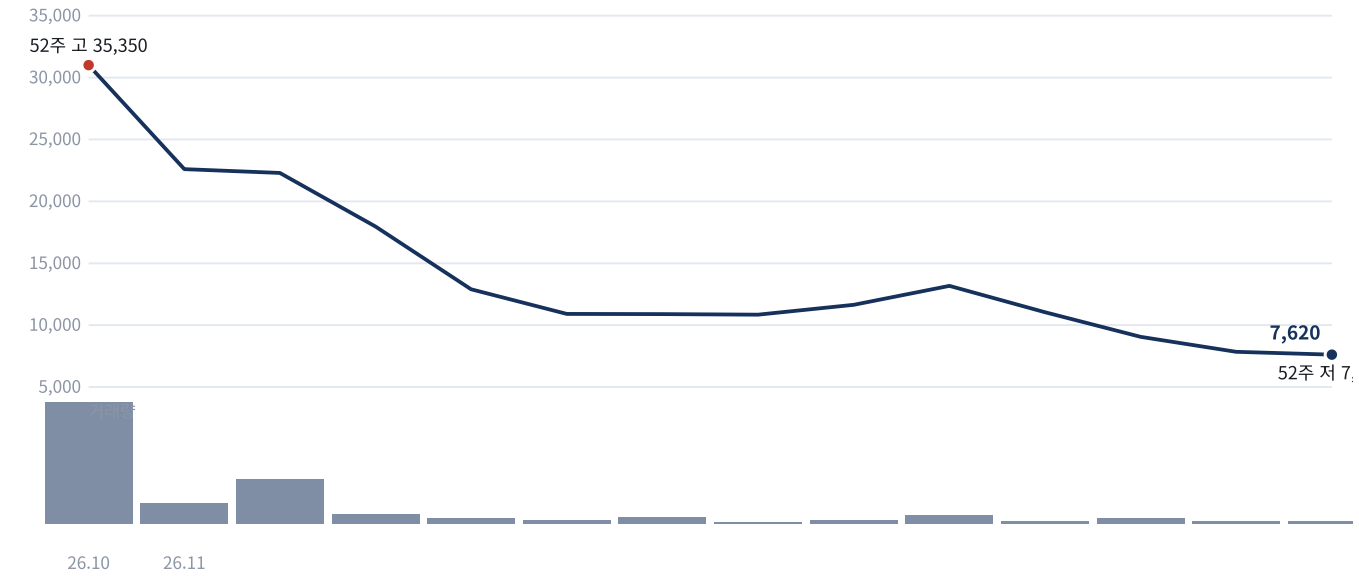
1. 2025년 매출 466억·영업이익 49억·순이익 54억으로 13년 연속 흑자, 영업이익률 10.5%·ROE 28.8%로 수익성 우량
2. 공모주 청약에 4조원이 몰렸고 상장 첫날 공모가(9,000원) 대비 244% 급등 — 시장의 기대가 매우 높았음
3. 부채비율 55%·당좌비율 209.8%·유보율 2,603%로 재무 안정성이 탄탄해 하방을 일부 받쳐 줌

핵심 리스크

1. 상장 후 20일 만에 주가 31,000원→7,620원으로 -75% 폭락, 52주 최저가(7,060원) 바로 위에서 거래 중인 전형적 신규상장주 급락 국면
2. 상장 보름 뒤·6개월째 보호예수 해제와 오버행(대량 대기물량) 부담이 남아 있고, 딜사이트 보도상 재고·외상대금 증가로 현금 고민이 지적됨
3. PBR 2.22배로 자산 대비 저평가가 아니며, 공모 직후 기대가 꺼진 지금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지 않음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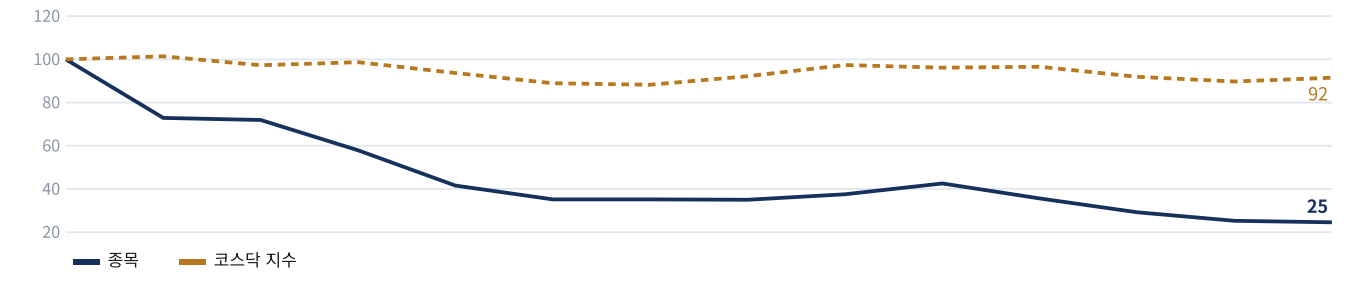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11,640원	-34.5%	-6.0%	-28.5%
1개월 전	31,000원	-75.4%	-18.1%	-57.4%
3개월 전	31,000원	-75.4%	-	-
1년 전	31,000원	-75.4%	-24.6%	-50.9%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1,009,986주	78.6억	0.1x
5일 평균	1,736,067주	185.0억	0.2x
20일 평균	7,015,344주	1724.2억	1.0x
60일 평균	7,015,344주	1724.2억	1.0x
1년 평균	7,015,344주	1724.2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18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이 종목의 주가 데이터는 '상장 20일치'가 전부입니다.** 1개월·3개월·1년 등락률이 모두 -75.4%로 동일하고, 1개월전·3개월전·1년전 비교가가 전부 31,000원인 것은 2026년 10월 30일 상장으로 그 이전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52주 최고 35,350원(10/30)과 최저 7,060원(11/18)의 거리가 -78.4%인데, 이 두 지점 모두 상장 후 20일 안에 찍혔습니다. **즉 지금 보이는 전부가 '상장 직후 과열과 그 붕괴' 한 구간**입니다.

② **거래량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20일·60일·250일 평균 거래량이 모두 7,015,344주로 동일한 것 역시 상장 20일치 데이터여서인데, 당일 거래량 1,009,986주는 그 평균의 0.1배에 불과합니다. 5일 평균(1,736,067주)도 20일 평균의 0.2배입니다. 상장 첫날 폭발했던 거래가 급속히 식어가는 전형적 패턴으로, **차익실현 세력이 빠지고 매수세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변동일이 9일로, 하루걸러 급등락하는 고변동 국면입니다.

③ **외국인 비중은 애초에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현재 0.73%, 한 달 전 0.05%로 사실상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상장 초기 수급은 전적으로 개인과 기관 공모 물량의 손바뀜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급락의 주체는 상장 첫날 매수한 개인과 보호예수가 없는 유통물량의 차익·손절 매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④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약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개월 -18.1%인데 이 종목은 -75.4%로, 지수 대비 57%p 더 빠졌습니다. 지수 하락이 거들긴 했지만 급락의 본질은 **신규상장주 고유의 과열 해소**입니다. 지금은 52주 최저가(7,060원) 바로 위 +7.9% 지점에서 바닥을 더듬는 중입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상장 첫날의 과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성됐으며, 보호예수 해제라는 추가 물량 고비가 남아 바닥 판단은 이르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인텔리빅스는 CCTV 등 영상에서 사람·사물·상황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하는 **Vision AI(영상분석 AI)** 전문 기업으로, 화재·침입·추락·이상행동 같은 위험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안전 AI(안전관제 AI)'를 주력으로 합니다.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공공기관(지자체 관제센터)·산업현장을 핵심 고객으로 둡니다. 2026년 10월 30일 코스닥에 일반상장했고, 국방·자율주행·선박·피지컬 AI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Vision AI 안전관제	CCTV 영상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화재·침입·추락·이상행동을 탐지하는 핵심 솔루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산업안전 현장에 공급. 매출 비중은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확인 필요.
GenAMS·생성형 AI	생성형 AI를 접목한 지능형 관제·분석 솔루션. 영상 데이터에서 상황을 자동 요약·보고하는 기능으로 추정되며, 구체 매출 기여는 DART 확인 필요.
신사업(국방·피지컬 AI)	국방 감시·자율주행·선박 등으로 영상 AI를 확장하는 '피지컬 AI' 영역. 상장 보도상 성장동력으로 제시됐으나 매출 기여는 아직 미확인.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필요. 언론 보도상 공공 안전관제가 주축.

고객과 판매 구조

1차 고객은 **지자체·공공기관(통합관제센터)**으로 추정되며, 공공 조달 성격상 입찰·예산 사이클에 매출이 좌우됩니다. 산업현장(건설·제조 안전관제)도 주요 수요처입니다. 상장 보도에서 국방·자율주행·선박 등 신규 수요처 확장을 강조했으나 아직 실적 기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객 구성과 매출 집중도는 DART 증권신고서 '사업의 내용'과 '매출 및 수주 현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구도

국내 영상분석 AI 시장에서는 **알체라, 씨유박스, 슈프리마, 한화비전(영상보안), 트루엔** 등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합니다. 인텔리빅스의 상대적 강점은 13년 연속 흑자라는 검증된 수익성(2025년 영업이익률 10.5%)으로, 적자 상태인 일부 AI 상장사와 차별화됩니다. 약점은 공공 조달 의존도가 높아 매출 성장이 예산·입찰에 묶여 있을 가능성과, 아직 국방·피지컬 AI 신사업이 실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업 밸류체인 영상분석 AI — 카메라에서 안전관제까지

영상 AI 산업은 위로는 카메라·반도체(엣지 칩)·클라우드 인프라에, 아래로는 공공·산업 관제 수요에 걸쳐 있습니다. 인텔리빅스는 이 사슬의 **중간(AI 분석 소프트웨어·솔루션)**에 위치하며, 하드웨어(카메라)를 만들기보다 그 영상을 해석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① 하드웨어·인프라	›	② AI 분석 소프트웨어	›	③ 시스템 통합·관제구축	›	④ 최종 수요
CCTV·카메라: 한화비전, 트루엔 / 엣지 칩·GPU: 엔비디아, 인텔 / 클라우드: AWS, NAVER클라우드		인텔리빅스, 알체라, 씨유박스, 슈프리마		SI 업체, 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통신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산업안전 현장, 국방, 자율주행·선박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실적이 이미 증명된 AI 회사다.** 적자 AI 상장사가 많은 가운데 13년 연속 흑자, 2025년 순이익 54억·ROE 28.8%는 희소한 기록이다. 수익성 자체는 이 종목의 가장 단단한 근거다.
2. **그러나 지금의 변수는 사업이 아니라 수급이다.** 상장 20일차 신규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공모 물량·보호예수·과열 해소다. 재무를 봐도 현재 주가 급락은 설명되지 않는다.
3. **공공 조달 의존은 양날의 칼이다.** 지자체·공공 관제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예산·입찰 사이클에 묶여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다. 민간·해외·국방으로의 확장이 다음 성장의 관건이다.
4. **'AI 영상분석' 테마는 정책·사건에 민감하다.** 재난·안전사고·치안 이슈가 터지면 관제 투자 확대 기대로 테마가 달아오르고, 반대로 식으면 빠르게 빠진다. 실적과 무관한 변동이 크다.
5. **피지컬 AI·국방은 기대이지 숫자가 아니다.** 상장 과정에서 강조된 자율주행·선박·국방 확장은 아직 매출로 확인된 공시가 없다. 이 기대가 실제 수주로 연결되는지가 중장기 재평가의 분기점이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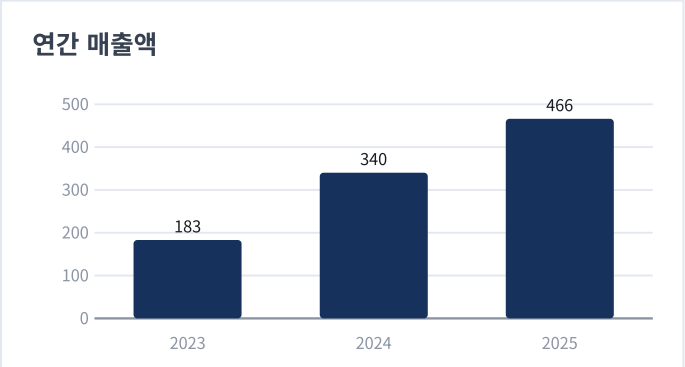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공공·지자체 관제 예산	+	높음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공공 조달로 추정. 지자체 통합관제 예산 집행이 수주를 좌우
신규상장 보호예수 해제·오버행	−	매우 높음	상장 보름·1·3·6개월 시점의 대기물량 출회가 단기 주가의 최대 변수
AI·안전 테마 수급	±	매우 높음	재난·치안 이슈나 AI 테마 열기에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크게 움직임
국방·피지컬 AI 신사업	+	낮음(현재)	자율주행·선박·국방 확장은 기대 단계. 실제 수주 공시가 나와야 실적 연결
재고·외상대금(운전자본) 부담	−	중간	딜사이트 보도상 재고·매출채권 증가로 현금 흐름 압박 지적.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의 괴리 점검 필요
코스닥 지수·중소형주 수급	−	높음	외국인 참여가 거의 없는 종목이라 국내 기관·개인 수급과 지수 분위기에 종속
경쟁 심화(알체라·씨유박스 등)	−	중간	영상 AI 진입자 증가로 공공 입찰 경쟁·단가 압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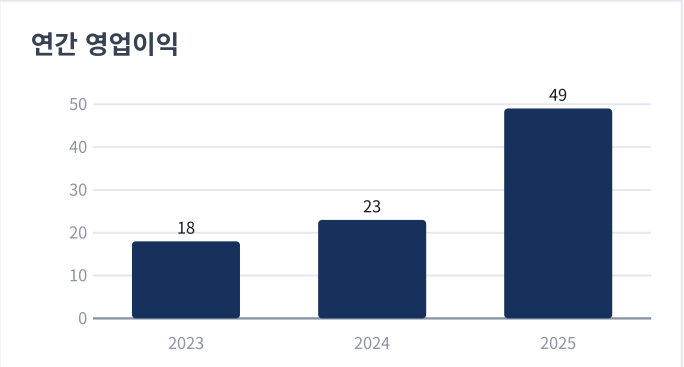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83	18	16
2024	340	23	28
2025	466	4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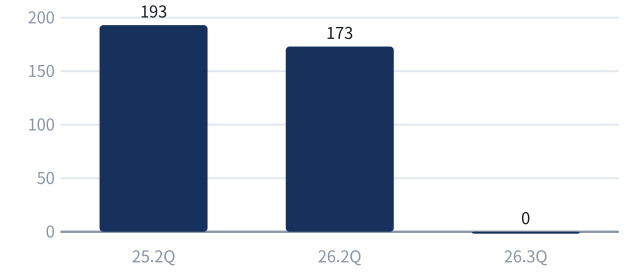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2Q	193	45	47
26.2Q	173	35	29
26.3Q	-	-	-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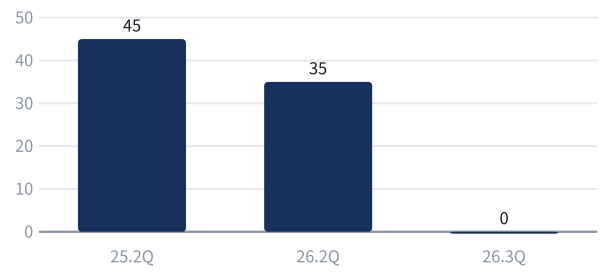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실적만 떼어 놓고 보면 보기 드문 우량 중소형주입니다. 매출이 183억(2023) → 340억(2024) → 466억(2025)으로 2년 만에 2.5배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18억 → 23억 → 49억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은 16억 → 28억 → 54억. 2025년 기준 영업이익률 10.5%, 순이익률 11.5%, ROE 28.8%로 AI 업종에서 보기 드문 고수익·고효율 구조입니다. 13년 연속 흑자라는 상장 홍보 문구가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분기 데이터에는 둔화 신호가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 193억·영업이익 45억에서 2026년 2분기 매출 173억·영업이익 3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0%·영업이익 -22% 역성장했습니다. 순이익도 47억에서 29억으로 줄었습니다. 상장 직전 분기의 실적이 꺾였다는 점은, 성장 스토리로 공모를 흥행시킨 신규주에게 특히 민감한 대목입니다. 3분기(26.3Q) 숫자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이 둔화가 일시적인지 추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매우 양호합니다. 부채비율 59.4%(2025년 말) → 55.0%(2026년 6월)로 낮고, 당좌비율은 191.8% → 209.8%로 넉넉합니다. 유보율 2,603%는 자본이 두껍게 쌓여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공모 자금까지 유입돼 단기 재무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이익'과 '현금'의 괴리입니다. 딜사이트 보도(10/20)는 IPO를 앞두고 재고가 쌓이고 외상대금(매출채권)이 불어나 '현금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부상 이익은 나지만 실제 현금 회수가 늦어지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DART 재무제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매출채권·재고자산 증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률이 높은데도 현금이 부족하다면 성장의 질을 다시 봐야 합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13년 연속 흑자 — 2025년 매출 466억·순이익 54억

적자 AI 상장사가 많은 가운데 13년 연속 흑자라는 검증된 수익성을 가졌습니다. 매출이 2023년 183억에서 2025년 466억으로 2년 만에 2.5배 성장했고, 영업이익률 10.5%·ROE 28.8%로 효율도 높습니다. 사업 자체의 체력은 단단합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3.16 / 연합뉴스 2026.10.16

공모 청약에 4조원 — 상장 흥행

코스닥 상장을 앞둔 공모주 청약에 약 4조원의 자금이 몰리며 IPO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인 9,000원으로 확정됐고,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44%까지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초기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 보안뉴스 2026.10.23 / 보안뉴스 2026.10.21 / 보안뉴스 2026.11.02

재무 안정성 우량 — 부채비율 55%·당좌비율 210%

2026년 6월 기준 부채비율 55.0%, 당좌비율 209.8%, 유보율 2,603%로 재무가 매우 탄탄합니다. 여기에 공모로 유입된 자금이 더해져 단기 자금 리스크는 사실상 없습니다. 급락 국면에서도 청산가치가 하방을 일부 받쳐 줍니다.

출처 · DART 분기재무 2026.0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10.26

국방·피지컬 AI로 사업 확장 추진

기존 공공 안전관제를 넘어 국방 감시·자율주행·선박 등 '피지컬 AI'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공 조달에 치우친 매출 구조를 분산하려는 시도로,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 성장 스토리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더나은미래 2026.10.16 / AI타임스 2026.10.16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상장 20일 만에 주가 -75% 폭락

2026년 10월 30일 상장 첫날 공모가(9,000원) 대비 3.5배(244%) 급등해 52주 최고 35,350원까지 치솟았으나, 11월 18일 7,620원으로 약 75% 빠졌습니다. 52주 최저가(7,060원) 바로 위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형적인 신규상장주 과열 해소 국면으로, 실적이 아니라 수급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0~11 / Chosunbiz 2026.10.30

보호예수 해제·오버행 고비가 남아 있음

상장일 보도에 따르면 상장 첫날 유통물량 11.86%에 이어 '보름 뒤와 6개월째'가 진짜 고비로 지목됐습니다. 보호예수(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인 물량)가 풀리는 시점마다 대량 매도 가능성이 있어, 주가 추가 하락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2026.10.27

상장 직전 분기 실적 역성장

2026년 2분기 매출 173억·영업이익 35억·순이익 29억으로, 전년 동기(매출 193억·영업이익 45억·순이익 47억) 대비 매출 -10%·영업이익 -22%·순이익 -38% 역성장했습니다. 성장 스토리로 공모를 흥행시킨 신규주에게 상장 직전 실적 둔화는 부담입니다. 3분기 숫자로 추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DART 분기재무 2026.06 / 2025.06 비교

재고·외상대금 증가 — '현금 고민' 지적

딜사이트 보도(10/20)는 IPO를 앞두고 재고가 쌓이고 외상대금(매출채권)이 불어나 현금 흐름에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부상 이익은 높지만 실제 현금 회수가 늦어지는 구조일 수 있어, DART 영업활동현금흐름과 운전자본 증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딜사이트 2026.10.20

PBR 2.22배 — 자산 대비 저평가 아님

주당순자산(BPS) 3,425원에 주가 7,620원으로 PBR 2.22배입니다. 급락했다고는 하나 자산 가치 대비로는 여전히 2배 이상이라 '싸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ER 11.39배도 성장 둔화를 감안하면 뚜렷한 저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지표 2026.11.18

외국인 미참여·거래 급감으로 수급 취약

외국인 소진율이 0.73%로 사실상 외국인이 없는 종목입니다. 당일 거래량은 20일 평균의 0.1배로, 상장 초 폭발했던 거래가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얇아 반등 동력이 약하고, 작은 매도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18

상장 20일치 데이터뿐 — 주가 판단 근거 부족

1개월·3개월·1년 등락률이 모두 -75.4%로 동일하고 비교가도 전부 31,000원인 것은 상장 이력이 20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20·60·250일 평균이 모두 같은 값입니다. 과거 바닥·지지선·추세를 가늠할 데이터가 없어 바닥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18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11.16	분기보고서 (2026.09)	인텔리빅스
2026.10.26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인텔리빅스
2026.10.20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인텔리빅스
2026.10.08	[첨부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인텔리빅스
2026.10.08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인텔리빅스
2026.09.1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인텔리빅스
2026.03.16	감사보고서 (2025.12)	한영회계법인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최근 공시는 전부 **IPO(기업공개) 한 흐름**입니다. 9월 16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제출로 상장 절차가 본격화됐고, 10월 8일 기재·첨부정정, 10월 20일 발행조건 확정(공모가 상단 9,000원), 10월 26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로 이어집니다. 10월 30일 상장이 완료된 직후의 공시 공백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즉 이 회사의 공시 타임라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 들어온 과정' 그 자체**이며, 상장 이후의 실적·수주·보호예수 관련 공시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공모로 들어온 자금의 사용 계획(시설·연구개발·운영자금 배분)과 상장 직전 분기 실적은 증권신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재고·매출채권 증가에 대한 자금 운용 설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3분기 이후 실적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2분기 역성장이 일시적으로 확인), 국방·피지컬 AI에서 실제 수주 공시가 나온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되고 AI·안전 테마가 재점화. 이 경우 13년 흑자·ROE 28.8%라는 펀더멘털이 재평가될 근거를 갖는다. **조건: 실적 회복과 수주 공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기본 시나리오

신규상장주 특유의 과열이 해소되며 7,000~11,000원 사이에서 바닥을 다진다. 실적은 둔화와 회복을 오가고, 보호예수 해제 때마다 물량 부담이 상단을 누른다. 주가는 회사 실적보다 AI 테마 수급과 지수 분위기에 따라 출렁인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

약세 시나리오

2분기 역성장이 추세로 굳어지고 3분기 실적도 부진. 보름·6개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지며 매도 압력 확대. 딜사이트가 지적한 현금 고민이 재무제표로 확인되고, AI 테마 열기까지 식는다. 이 경우 공모가(9,000원) 아래에서 추가 하락해 52주 최저(7,060원) 재이탈 가능성. **신규상장주가 자주 걷는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3분기(26.3Q) 실적 — 2분기 매출·영업이익 역성장이 일시적인지 추세인지 (11~12월 분기보고서)
2. 보호예수 해제 일정 — 상장 보름·1·3·6개월 시점의 대기물량 규모 (증권신고서 '유통가능주식 수' 확인)
3. DART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매출채권·재고자산 증감 — 딜사이트가 지적한 '현금 고민'의 실체
4. 국방·자율주행·선박 등 신사업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5. 공모 자금 사용 내역과 집행 속도 (증권신고서 자금사용계획 대비 실제)
6. 거래량 회복 여부와 AI·안전 테마 수급 — 바닥 다지기의 전제

오픈팩트의 결론

사업 자체는 13년 연속 흑자·ROE 28.8%의 보기 드문 우량 AI 기업이지만,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신규상장주 특유의 과열 해소와 보호예수라는 수급 변수**입니다. 상장 20일 만에 -75% 급락했고, PBR 2.22배로 자산 대비 저평가도 아니며, 상장 직전 분기 실적마저 역성장했습니다. **'좋은 회사'인 것과 '지금 좋은 가격'인 것은 별개**이며, 보름·6개월 보호예수 해제라는 물량 고비가 남아 있어 바닥 판단은 이릅니다. 3분기 실적과 현금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